한일군사문화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독도문제와 한일관계 등 부각

▲ 한일군사문화학회 학술발표대회가 열리고 있다.

▲ 권해조 회장이 개회인사말을 하고 있다.

본사 권해조權海兆 편집위원이 회장으로 있는 한일군사문화학회韓日軍事文化學會의 2008년 추계秋季 학술발표회가 지난해 11월 28일 13시부터 17시30분까지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충무관忠武館에서열렸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주로 일본의 영토 · 군사 · 문화 분야에 대한 연구발표와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이날 특히 초청강연으로 세종대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박사의 ‘ 독도문제와 한일관계 ’가 상명대 박나미 교수의 사회로 발표되어 관심을 끌었고 분과별로는 군사 · 정치 분야가 충무관 109교실에서, 문화 · 어문학 분야가 충무관 110교실에서 발표되었다. 발표대회를마친뒤에는 학회의 정기총회가 있고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육사회관에서 리셉션이열렸다.

육사박재권교수의사회로열린 개회식의 인사말에서 권해조 회장은 ‘ 한일관계는 21세기 동북아 유니온 시대를 대비하여 외면할 수 없는 이웃으로서 상호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어야한다. 오늘발표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 정평이 나 있는 일본관계 전문학자들이 참석하여 연구발표와 토론을 하는만큼 모든 참석자 여러분이 경륜과 지혜를 모아 양국간의 군사 · 사회 · 문화 등 제분야를 이해하시고 나아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도록 하여 양국의 관계발전에 기여하시기 바란다 ’는 요지를 말하였다.

호사카 유지 교수의 강연‘ 독도문제와 한일관계 ’는 ‘ 기초지식 · 일본은 역사상 세번 독도영유권을 스스로 부정했다 · 한국은 역사상 독도를 자국영토로 계속 주장해왔다 · 1905년의 독도 시마네현 편입은 침략행위 · 샌프란시스코조약과 독도 · 65년한일조약과독도 · 결론 ’으로 나위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일본은역사상세차례나독도영유권을 스스로 부정했다. 17세기말 울릉도를 왕래한 일본의 도토리번藩은 에도막부江戶幕府에 울릉도(다께시마竹島)와 독도(마쓰시마松島)가 자기네 영지가 아니라 하였고, 1870년 메이지정부明治政府의 최고권력기관 태정관太政官이 다께시마(울릉도) ·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영토로 된 전말에 대해 외무성에 조사할 것을 명했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영유논리인 고유영토설과 선점논리는 이율배반적이므로성립되지않는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상 독도가 일본영토로 남았다는 것은 일본의주장에불과하다. 대일평화조약은 비조인국인 한국의 국익을 훼손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과정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입장이관철되었다. 그러므로독도가 일본령이라는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 태정관 지령문 등 일본측 논리를 무효화시키는 역사적 근거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현재 지배상으로나 확실한 한국영토이다.

독도문제 초청강연을 한 호사카 교수는 일본 동경대東京大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2년 월드컵경기 때의 열기를 계기로 하여 2003년에한국에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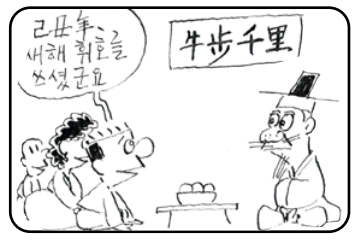
정치군사 분과의 발표에서는 중앙대 김호섭, 고려대 조명철 박사의 사회로 국방부 이준왕, 일본동북대東北大조윤수, 동북아재단 이명찬, 한국국방연구원 김두승, 명지대 이정용 박사가 일본의 최남단 오키노토리섬의 의미, 일본의 해양정책 · 핵정책 · 우주정책 변화와, 도조히데키東條英機와 태평양전쟁에 관한 발표에, 국방부 박용준 · 김준섭 · 손경호, 외교안보연구원 조양현, 인하대 남창희 박사의 토론이있었다.

언어문화 분과에서는 서울여대 조대하 · 고려대 김수미 · 성신여대 김효순 박사의 사회로 연세대 오상현, 육사 박재권, 외국어대김종덕, 중국청도대青島大 이평李平, 상명대 안노 마사히데阿武正英 교수가 유엔공용어 확장론, 언론기사에 나타난 사관학교이미지, 한국에서의원씨물어源氏物語연구, 나츠메소세끼夏月漱石의 문학관, 나가사끼長崎 원폭체험의 단면 등에 관한학술발표에경북대이광석, 성신여대 안평호, 아주대 김수희, 육사 서영식, 인하대 이승신 박사의토론이있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한일군사문화학회원 200여명과 평소 한일관계에 관심이 많은 성우회星友會 회원, 국방대 · 정보학교 · 상명대 · 서울여대 · 육사생도 등 학생 및 부산 · 대구 등지에서도 참석자들이 올라와 성황을 이루었다.

<사진 · 글 權奇允>

오만상 五萬像



격려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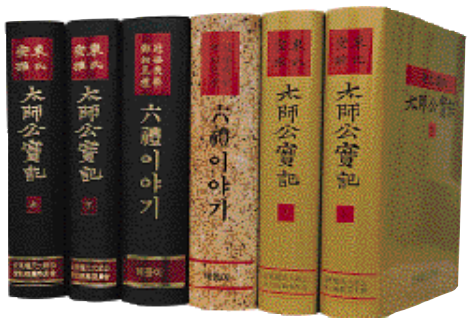
10월 25일 덕정종친회(회장 권성옥權聖玉)에서 5만원, 12월 4일 화산부원군종회(회장 권진택權晋澤)에서 10만원을 협찬하여 주시었습니다.

永嘉言行錄에 앞서 나왔어야할 영가언행록과 쌍벽을 이루는 千年安東權氏의 編年體姓氏史

安東權氏

太師公實記

저자 – 權五焄
저작권자 – 安東權氏太師公實記編纂委員會
보급처 – 安東權氏宗報社
상 · 하 2권 값 15만원
六禮이야기[48,000원] 별책 사은품 증정



4 · 6배판 1630면에 집성된 시조 태사공의 득성이전 김알지 大輔公 이래 천년과 득성이후천년의榮辱과곡절이어린안동권씨姓族의大河實錄!
文獻世鑑 · 太師權公實記 · 陵洞誌 · 陵洞實記 · 陵洞千年略史등안동권씨대종중에 5백년 동안축적돼온古文漢字만리장편敍事의완벽한국역주해와원문조판병재!
원색사진판 96면, 원고지1만여장분량으로책자의 수명1백년을내다보고 제작한 최고급寶藏本.

별책으로 함께 포장된 960면 정가 48,000원의 六禮이야기는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것입니다.

安東權氏宗報社 서울分社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 - 1 · 110 - 044
전화 02)723 - 4480 · 732 - 9139